

코스피지수 1,428.21 (+41.52)

코스닥지수 553.77 (+8.76)

금리(국고채 3년) 3.86% (+0.11)

원·달러 환율 1,249.50원 (-10.0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 김창남 개혁이나 vs 안정이나 최상준

## 대한건설협회 전남도 회장 선거 불꽃 점전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새 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치열하다. 9년만의 경선인데다 각각 건설 1, 2세대 대표를 대변하는 주자로 협회 운영을 둘러싼 개선 방식이 서로 달라 경쟁 구도는 더욱 뚜렷하다.

장년의 패기가 이기든 노년의 노련함이 승리하든 지역 건설업계는 변화의 길로 접어들어 벗어날 수 없다.

19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오는 28일 치러지는 제 19대 회장 선거에 이날 현재까지 김창남(54) 남양건설 대표이사과 최상준(72) 남화토건 대표이사 등 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마감일은 22일까지이지만, 최상준과 김창남으로 대표되는 건설 1, 2세대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00년 마형렬 남양건설 대표, 강태수 대주토건 대표 간의 대결 이후 9년 만의 경선이다. 후보자의 성향과 색깔도 확연히 다르다.

김 후보가 공격적 경영을 통해 회사를 급성장시킨 자수성가형 '건설 2세대 오너'라면, 최 후보는 40년 넘게 건설업계에 몸담아 온 관록을 자랑하는 '건설 1세대'이다.

협회 운영 방향을 내건 공약에서도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김 후보가 공격적 경영 스타일로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는 반면 최 후보는 화합과 안정 속에



〈김창남 대표〉



〈최상준 대표〉

점진적 개혁을 추진할 태세다.

두 후보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공사 물량 확보를 통한 회원사 수익 보호 및 투명한 협회 운영'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경우 발주처가 전문건설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직할 시공제나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최고가치 낙찰제 등에 협회가 무리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회의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공약도 ▲최고가치 낙찰제 적극 저지 등을 내세워 현 집행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상황이다.

반면, 최 후보는 ▲조달청 설계 가격의 인위적 삭감 관행 개선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가 대상 공사 확대 방지 및 축소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고가치 낙찰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의견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두 후보가 회원 권익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최근 회장 직선제 요구 등 회원사들의 협회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권을 갖는 대표회원의 자격을 둘러싼 공방도 선거전의 변수다. 전남도회 선관위가 기한 내(2월 16일)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개사의 대표자격을 박탈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거 쟁점으로 부각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후보 측은 "협회가 바쁘다는 핑계로 회비를 늦게 내도 된다고 해서 2월 말까지 완납했는데 뒤늦게 문제를 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누가 회장이 되든 지역 건설업계의 이익 도모를 위한 협회 차원의 자구 노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 외교관들 현대·기아차 탄다

19일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리셉션 홀에서 임재홍 외교통상부 기획조정실장과 양승석 현대차 사장이 '해외공관 업무용 차량 구입지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해외공관이 주재하고 있는 109개 국가의 대사관과 총영사관, 대표부 등 166개 해외공관 보유차량에 대해 교체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차량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아차 제공)

## 지역 상장사 1분기 수익성 크게 악화

### 법인 22곳 83% 급락 ... 매출은 소폭 늘어

실물경제 둔화와 환율 불안 등으로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수익성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광주·전남 12월 결산법인 22개사의 올해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매출액은 1조5천38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8억원(0.25%)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7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1천383억원에 비해 무려 867억원이나 급감한 -83.49%를 기록했다.

순이익도 지난해 231억원 적자에서 올해는 2천134억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1천93억원이나 확대됐다. 이에 따라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6.76%에서 올해 1.11%로 5.65%포인트 떨어졌다.

쉽게말해 1천원 어치를 팔아 지난해에는 67.6원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올해는 11.1원밖에 남기지 못한 셈이다.

지역 상장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와 환율 불안, 원자재 가격상승 등 외부요인에 의해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

이다.

개별 기업으로 보면 22개사 가운데 광주신세계, 셀린 등 14개사가 흑자를 실현한 반면 금호타이어, 대우디엘씨 등 8개사를 적자로 기록했다. 폐기물 처리업체인 와이엔텍과 IP-TV용 셋톱박스 제조업체인 셀린은 흑자로 전환했지만 성원파이퍼, 대우디엘씨, KPX화인케미칼, 해원에스티 등 4개사는 적자로 전환했다.

지역 상장사들은 또 자본총계가 3조2천647억원으로 1년만에 5.27%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203.35%로 13.86%포인트 상승하는 등 재무안정성이 더 악화됐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광주지방국세청 오룡동 시대

### 오늘 신청사 입주식 ... 정보화센터 개소도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광)은 20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신청사 입주식 및 정보화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입주식에는 허병의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제단체장, 합동청사 입주기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국세청은 26년간의 쌍촌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11일부터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첨단 시대를 열게 됐다.

광주국세청 사무실은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12층부터 17층까지 6개 층을 사용한다. 12층은 전산 정보화센터, 13층 남세지원국, 14층 세원관리국, 15층 청장실·운영지원과·감사관실·납세자보호담당관실, 16층 조사 1국, 17층 조사2국이 자리잡았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신청사 입주를 계기로 새로운 모습과 각오를 다져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청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현금영수증 꼭 발급 받으세요"

#### 광주세무서 대학생 상대 홍보 활동

광주 세무서(서장 김주현)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현금 영수증 알리기에 나섰다. (사진)

광주세무서는 19일 조선대학교 장미축제 현장에서 현금 영수증 제도를 알리고 즉석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홍보 활동을 펼쳤다.

광주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직원들은 이날 홍보물과 함께 꽃차, 풍선 등 선물도 나눠줬으며, 근로장려금제도·유가환급금 신청·소득세 신고 등에 대한 세무상담도 벌였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광주·전남 400억 투입

시설이 낡고 오래돼 주거환경이 나빠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추가경정예산으로 배정된 2천억원"을 포함, 모두 3천600억원을 들여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건설된 지 15년이 경과된 영구임대주택(176개 단지)과 50년 임대주택(192개 단지) 28만 가구

가 대상으로,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20개 단지에 대해 공공구 배관 개선, 사회복지관 개·보수, 재활용품 보관 시설 개선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국토부는 광주·전남지역 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등 396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의 경우 12개 영구·국민임대주택단지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 광주시가 관리하는 금호시영(1천

500가구)·쌍촌시영(500가구)·하남시영(1천500가구) 등 3개 영구임대주택단지와 주택공사가 관리하는 하남 1단지(1천884가구)·오치 1단지(1천658가구) 등 영구임대주택 7곳, 광주 운남 1단지(476가구)·동림 2단지(535가구) 등 50년 임대주택 등이다.

전남에서도 주택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목포 상동 1단지(480가구)·목포 연산 1단지(476가구) 등 8개 영구·50년 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영구임대주택과 50년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건설한 지 오래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10)223-1140, 5210 ☎ 011-802-2532  
(광주은행 신분관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소남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편과 인오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료를 내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히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 **별관임대용, 투자용**

- 토지 600평 건물 1,350평 (매가 78억)
- 보증금 37억 / 월세 3,000만원 용지 12억
- 토지 500평 건물 1,500평 (매가 85억)
- 보증금 7억 / 월세 6,000만원 (매가 85억)
- 토지 590평 건물 750평 (매가 100억)
- 보증금 40억 / 월세 2,000만원 용지 12억

▶ **토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회사사무 및 병원, 학원부지 등)

- 834.5㎡(250평) - 매가 평당 1,300만원 (할렘버스 국경과 메가박스 증진사거리까지)
- 833㎡(220평) - 평당 1,200만원 (매리제 호텔 주변 식당 유흥업소적합)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상무우리동행원주변)

▶ **기타용도**

- (농장) 73,000㎡(22만평) - 평당 10만원 (동산동) 장기투자용 특은곳

▶ **호텔/모텔**

- 상무지구 역전 35개 객실 (매가 28억)
- (2층 유흥주점 보증금 3,000만 / 월 450만원)

현금 45억 투자로  
월수 1억 가능한 모텔 및 호텔운영성당

맞춤주분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 드립니다.  
아무 때든 전화하십시오.

**목장용지급매**

☎ 위치: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367, 367-6, 367-9 등 10개번지

☎ 목장용지: 12343㎡(3734평)

☎ 면적: 2350㎡(약 700평), 축사(한우 약 50두 이상 사육가능), 견사 주택(104㎡), 염소막사, 버섯재배사 등

☎ 매도가: 1억 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 연락처: 010-3617-8810

**EVENT**

5월 부모님께 전하는 감사의 마음

**돈보보다 비데**

행사기간: 2009년 05월 10일 ~ 05월 31일

부모님 선물은 현금이 최고!  
단, 노비타 비데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전하는 실속 있는 호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50  
-270,000원  
159,000원 -45%

※ 상기 가격은 설치비 미포함

모든 구매고객에게  
1년치 필터(2ea) 증정

노비타 비데 호남총판  
(주)비데프라자  
062) 515-1144